

탄중쁘리옥 항(자카르타) 컨테이너 보관료 인상



□ 주요내용

-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 탄중 뿌리옥 항구의 수입 컨테이너 무료보관 기간이 단축될 예정이다. 현지 언론은 3월 1일부터 무료보관 기한이 기존 3일에서 1일로 줄어 보관료가 크게 상승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 탄중 뿌리옥을 운영하고 있는 국영 항만 운영사인 뽀린도Ⅱ(PT. Pelabuhan Indonesia Ⅱ)는 지난 23일 새로운 요금규정을 정하고 보관 2일째부터 현행의 9배 요금을 부과할 전망이다. 아울러 보관 기간이 3일을 넘긴 컨테이너는 화주가 비용을 부담하기 전에는 터미널 밖으로 반출을 금할 예정이다.
- 기존 컨테이너 기본 보관료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당 2만 7,200루피아(약 2500원), 40피트 컨테이너가 5만 4,400루피아(약 5천원)로 책정되어 있다.

□ 시사점

- 탄중 뿌리옥항은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 북부에 위치한 항만으로 자바섬의 수출, 수입물품을 취급하며 대부분의 수입제품들이 통과하는 인도네시아의

관문과 같은 항구이다.

- 인도네시아 물류 인프라가 열악하여 전체 GDP에 물류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27%로 주변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의 15% 이하에 비해 높은 편이다. 이번 컨테이너 보관료 인상은 수출입 여건을 더욱 악화시키는 결정으로 판단된다.

출처 : Jakarta Biz Weekly